

일. 영적 전쟁:

❖ 공격용 무기들 (고후 10:1-11)

-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기를 그의 편지를 읽으면 강경한 사람 같지만, 막상 직접 만나보면 연약하고 서투르다고 했습니다(고후 10:10).
-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직접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든지 그들을 엄격하게 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. 하지만 그는 권위로 그들을 압박하거나, 신체적 처벌, 혹은 자기 자랑과 같은 ‘육신에 속한 무기’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, 오직 ‘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무기들’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(고후 10:2-4).
- 이 ‘무기들’은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온유함 등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(마 11:29)을 뜻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를 단호히 책망하시고(마 21:12-13) 필요할 때 분명히 죄를 지적하신 것도(마 23:23-27) 포함합니다.
- 바울의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었으며, 그는 파괴하기위해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세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(고후 10:8).

❖ 올바른 방어법 (고후 10:12-18)

-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 철학을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 거액의 수업료를 받았습니다. 그들은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기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, 또는 자신들을 존경한다는 저명한 인물들을 인용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했습니다.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도 똑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(고후 10:12; 11:19-20).
- 하지만 바울은 돈을 받고 진리를 나누어 주지 않았고,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,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. 사람들은 그의 이런 태도를 업신여겼습니다!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자격 있는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?
-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바울은 그들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자신의 경력이나 실력을 내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(잠언 27:2).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칭찬하시도록 했습니다(고후 10:18).
- 우리가 자랑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,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(렘 9:24; 고후 10:17).

이.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는 방법:

❖ 사도로 위장한 사기꾼들(고후 11:1-15)

- 바울은 (교회를)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했습니다(고후 11:2). 그러나 교회는 하와처럼 유혹에 빠져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(고후 11:3).
- 그들이 직면한 위험은 무엇이었습니까? 예수님의 ‘위대한 사도’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와서 ‘다른 예수’, ‘다른 영’, ‘다른 복음’을 가르쳤던 것입니다(고후 11:4-5; 갈 1:8).
- 예수님에 대한 설교라고 해서 다 성경에 계시된 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. 훌륭한 말로 설교할지 모르지만, 사탄 자신도 훌륭하게 말하며 스스로를 ‘빛의 천사’로 가장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(고후 11:14).
- 참 교사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“그리스도의 진리”를 가르칩니다(고후 11:9-10). 그러나 경건한 척하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로 가장한 사기꾼들입니다(고후 11:13-15).

❖ 바울과 거짓 교사들 (고후 11:16-31)

- 바울과 거짓 교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? 그들은 모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(고후 11:22).
- 그렇다면 바울과 거짓 교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? 여기서 바울은 잠시 ‘미친/정신나간’ 논리를 펼칩니다. “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? (이런 질문자체가 말도 안되는 미친 짓이지만) 나는 더더욱 그렇다”(고후 11:23).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했다고 자랑한다면,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자격을 얻었을 것입니다. 바울은 매 맞고, 감옥에 갇히고, 죽음의 협박을 받고, 돌에 맞고, 파선 당하고, 온갖 위험에 처했으며, 굶주림과 목마름, 추위와 헐벗음을 겪었고, 쉬지도 못하고 여러 교회들을 염려했습니다(고후 11:23-29).
- 마침내 바울은 그의 ‘미친’ 논리를 마칩니다.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.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.
- 바울의 진정한 힘은 자신의 연약함에 있었고, 연약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(고후 11:30-31; 12:6-10).

❖ 자기 성찰과 승리 (고후 12:14-13:10)

-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가 다가왔습니다.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,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? (고후 13:1-2).
- 바울은 회개하는 사람은 회복시키는 반면, 끝까지 자기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교회적 징벌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
-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그들이 다툼과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. 그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상황을 염려했던 것입니다(고후 12:20-21).

- 따라서 바울이 오기 전에,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했습니다(고후 13:5).
- 바울은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(고후 13:7-9).